

# “존폐기로 전남도립대, 대책 서둘러라”

도의회, 정부공모 잇단 탈락 질타  
부실 이미지·방만운영도 도마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주문

정부 공모사업 탈락과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 대학’ 이미지가 강한 전남도립대학교를 정상화 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

5)은 지난 20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남도립대의 운영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전남도립대가 지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00억이 중단되고, 고등교육기관거점지구 사업(HiVE) 공모사업에도 탈락했다”며 “이제 도 자체사업으로만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어떠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지의 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경력이 풍부한 도립대 총장 부임

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현재 대학 운영 상황을 보면 역량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 하물며 학교 내부에서조차 총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며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전남도립대가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한 만큼 강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차영수 의원(민주당·강진)도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는 전남도립대가 경쟁

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달 초 고등교육기관거점지구(HiVE) 공모사업에 또다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결실한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도립대가 대학 경쟁력 제고의 한 방안으로 타지역 인재를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으로 신입생 충원을, 재학생 중도탈락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도민과 학생을 위한 혁신안을 만드는 것에도 동의한다. 대학의 발전 방향을 위한 혁신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도립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을 통해 전남에 주소를 두거나 전남소재 고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예산 낭비’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오선우 기자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 이형석 의원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일 도의원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확대해야”

최근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의 발달장애인은 1만3,270명이며, 488명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에 108억여원을 지원 중이다. 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 평생교육지원센터, 일시돌봄센터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자기 인생이 없다”며 “부모가



여행이나 경조사 참석을 위해 발달장애인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부모를 대신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일시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가 발달장애인 힐링캠프나 테마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도 나이 들어가고 돌봄이 힘든 만큼 전남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선우 기자

## 남도한바퀴, 제주도민 신고 전남 관광지 누빈다

1박2일 페리 연계상품 출시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남도한바퀴’ 관광지 순환버스가 제주도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한다.  
전남도는 21일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와 ‘제주페리’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 오는 23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민의 육지 관광 수요가 늘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남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남도한바퀴 제주페리 상품은 매주 토요일 제

주에서 페리를 타고 완도항이나 진도항에 내려 버스로 1박 2일 동안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이다. 진도항 출발은 19만9,000원, 완도항 출발은 20만9,000원이며 여기에는 왕복 승선비,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어 개별여행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남 대흥사,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1960년대 기차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섬진강기차마을, 전통 남종화의 분산 진도 윤림산방, 다도해의 금빛 나초와 야경을 감상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최근 떠오르는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중

심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전남도는 남도한바퀴 제주페리 연계상품 출시에 맞춰 제주공항, 페리, 여객선터미널에서 전단지, 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추후 홍보영상, 지역 유튜브 및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상품 알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도민이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상품을 준비했다”며 “안심관광 힐링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전남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송형곤 도의원, 학교 성폭력 체계적 대응 촉구

지역에 만연한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지난 20일 열린 전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대응과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2차·3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남 도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교육청 내에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천홍 부교육감은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도민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지역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발생 현황은 2020년 213건, 2021년 287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도 6월 31일 기준 157건에 달했다.  
/오선우 기자

2022~2023 문화관광 지정축제

# 제15회 정남진 강홍 뽕축제

7.30(토) ~ 8.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